

은퇴 음악가들 모여 희망의 선율 들려준다

골드필오케스트라 16일 창단연주회
음악 교사·대학강사·주부 등
50세 이상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
문화소외계층에 음악나눔 펼칠 것



원로음악인으로 구성된 골드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오는 16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연습 모습.

“우리가 ‘수도 없이’ 연주해본 곡이니 모두들 잘 할 수 있겠지요? 자 시작해봅시다.”

8일 오전 잦은 빗고을시민문화관 연습실에서는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악장의 말과 함께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 곡을 ‘수도 없이’ 연주해본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골드필오케스트라(Goldphil Orchestra-이하 골드필) 단원들이다. 골드필은 이날 음악감독이자 악장인 이창훈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열리는 창단연주회(오후 7시 광주북구문화센터) 연습에 한창이었다.

지난해 창단한 골드필은 지역의 원로 음악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50세 이상 관현악 전공자들로 이뤄진 골드필은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열정적인 에너지로 공연과 사회활동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창단했다.

단원중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50세, 가장 고령인 단원은 71세로 이들 모두 평생을 연주자 또는 교육자로 음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곡을 ‘수도 없이’ 연주했다는 악장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골드필 대표는 김봉학 전 국립포독대 음악과 교수이며, 음악감독 및 악장은 이창훈(전 광주시향 악장)이, 운영실장은 김유정(전 광주시향 단원), 운영팀장은 문맹권(전 대학 강사)이 맡았다. 단원들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명예·정년퇴직된 사람부터 음악을 전공한 교사, 대학에 출강 중인 강사, 관현악을 전공한 주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에는 무지크바움유스오케스트라,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등 시니어를 뜻하는 실버(Silver)를 이름으로 내세운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이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을 의미하는 ‘골드’를 이름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오래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

는 의미와 후배 음악인들에게 모범이 되고자하는 희망을 담았다.

이번 창단연주회에는 아쉽게도 28명만이 참여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단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스트링오케스트라와 플루트 단원만이 무대에 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연습해온 이들은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라장조 K. 136’을 시작으로 브루흐 ‘콜 니드라이 Op.47’,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11번 라단조’, 리처드 로저스가 작곡하고 홀컴&도시가 편곡한 ‘Selection from the Sound of Music’ 등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Op.20’로 장식한다.

무대에는 바이올린 김금아·유건우·이현정·조순미·박광미 등과 비올라 송민주·송경옥·윤재은, 첼로 조은하·이명진·문맹권·노혜경, 더블베이스 김정숙, 플루트 배혜경·변성호·이현경 등이 오른다. 또 첼로 권유리, 피아노 정가빈도 함께한다.

이들은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공연, 초청공연, 음악나눔, 교육봉사, 축제 참여 등으로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김유정 운영실장은 “내년에는 골드필 오케스트라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공연을 펼칠 것”이라며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에도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원로 교향악단으로는 지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연륜이 묻어있는 화음으로 후배 음악인들의 본이 되고 코로나 19 시대에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단원 전체가 출연하는 풀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하는 김봉학 대표는 “창단한지 1년이나 됐는데 그간 코로나 19로 쉽사리 연주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전문 기자 ej6621@kwangju.co.kr

‘혀’ 모티브로 인간존재·생명정신 그려

전숙 시인 다섯번째 시집
‘저녁, 그 따뜻한 혀’ 펴내



‘상처의 연대기’로 구상돼 있다. 시인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질료로 시를 바라보고 사유한다.

지난 2007년 ‘시와사람’ 신인상으로 등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숙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저녁, 그 따뜻한 혀’(문학들)를 펴냈다.

시인은 ‘혀’가 지닌 원초성을 모티브로 인간 존재와 생명 정신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려낸다.

김중 시인의 ‘아가페적 사랑을 몸바꾼 혀는 어머니와 동의어’라는 표현처럼 시인은 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전착한다.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촉은지성’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제다.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슬픔이라는 육식공룡’, 2부는 ‘골목의 온도’, 3부는 ‘사진 한 장의 무게’, 4부는

“신산하고 쓰라린 그의 삶을 지켜보며 시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구현하는 수단임을 깨닫게 한다”며 “각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끄는 의지로 작용한다”고 평한다.

한편 전숙 시인은 나주예술문화 대상, 한국가사문학대상 우수상, 고운최치운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나이트 호미’, ‘눈물에게’, ‘아버지의 손’, ‘꽃잎의 흉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성자 동화작가 조연현문학상 수상

영광 출신 이성자(사진) 동화작가가 한국문인협회(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가 수여하는 제40회 조연현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인협회는 “이성자 작가는 평소 뛰어난 작품활동으로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동화집 ‘두근두근 북정발’이 우수작으로 평가돼 제40회 조연현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연현문학상은 평론가 조연현(1920~1981)의 문학적 성과를 기리기 위해 1982년 조연현문학상운영위원회가 제정했다. 조연현은 한국의 근현대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했으며 1948년 평론집 ‘문학과 사상’을 발간했



다.

한편 수상자인 이성자 작가는 명지대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영양이에 뽀뽀’, ‘입안에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뽀뽀 날다!’ 등을 펴냈다. 현재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영양이에 뽀뽀’, ‘입안에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뽀뽀 날다!’ 등을 펴냈다. 현재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김광철 GB작가스튜디오탐방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올해 네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퍼포먼스와 회화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철 작가를 만난다.

이번 GB작가스튜디오탐방은 김광철 작가의 작업실에서 10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be/_BXvORoQLt4)로 진행된다. 이날 패널로는 소촌아트팩토리 김병현 공장장이 참여해 김광철 작가의 퍼포먼스와 회화에 대한 작업 세계를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며 대담 후에는 ‘데이블 도미노’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다중 레이어 퍼포먼스아트’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해 복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29개국에서 초청받아 퍼포먼스를 진행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 시간과 대한 고민을 개념화한 퍼포먼스 개인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 작가는 비영리예술법인 글로벌 메이킹아트 네트워크 대표로 2017년 폴란드 6개도시 44일 아트투어 프로젝트, 2018 유럽6개국+방글라데시 아트투어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와 아트페스티벌에 예술감독 겸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 3일 전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작가스튜디오탐방’ 메뉴를 통해 작가의 리플릿을 다룬받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팔죽·4색 경단...동지음식 세대전

11일 올 마지막 ‘무등풍류 댄’
전통문화관...김산옥 등 출연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무등풍류 댄’ 올해 마지막 행사가 ‘동지’를 주제로 열린다. 오는 11일 낮 12시30분 전통문화관.

이번 행사는 끝자락 절기인 ‘동지’를 주제로 펼쳐지며 전통을 잇는 융복합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전통 동지상과 현대 감각의 겨울 음식을 전시하는 ‘동지음식 세대(世代)전’이 펼쳐진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섭의 팔죽과 붉은 팥시루

떡 등 전통 동지상과 이수자 김현진의 4색 경단, 꽃감단지과 꽃감쌈 등 현대 감각의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는 민속학자 나경수(전남대 명예교수)와 이애섭 남도의례음식장이 24절기와 겨울나기 풍습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운선(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 맡으며 관람객 선착순 10명 제한.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씨와 국악인 박성우 씨가 ‘옛 소리와 연(聯)하다’를 펼친다. 김산옥이 ‘춘향가’, 박성우가 ‘수궁가’ 등을 선보인다. 고수는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씨가 맡는다. 선착순 20명 제한.



국악인 박성우

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가 행사로 동지맛이 ‘나무 주방용품(냄비받침) 나눔’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나눔은 선착순 50명으로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가능하다.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전통문화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